향기로운 삶을 찾는 순진무구한 노력

포천반월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제4회 正元書會展

제4회 정원서회(회장 홍찬기) 회원전이 11월3일부터 7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 2층에서 열렸다.

11월3일 개최된 제4회 정원서회전 개막식에는 이만구 포천문화원장과 이희용 포천시예총 회장등 내빈과 정원서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홍찬기 정원서회 회장은 "포천의 남단 송우리에서 작은 싹을 틔운지 7년여, 이제 포천의 중심에서 서회전을 갖게 됨에 가슴이 뿌듯해지는 감회를 느끼게 된다"며 "오늘의 서회전은 그윽한 묵향이 마냥 좋기에 시간을 쪼개어 붓을 들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일상화 함으로서 보다 더 향기로운 삶을 찾아보려는 우리 동호인들의 순진무구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만구 문화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렵게 쓰신 귀한 작품들을 우리 문화가족들을 위하여 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전시회에 참여하여 감상하시는 문화가족 여러분께서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진정한 서도의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희용 포천시예총회장은 "오늘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장동원 정원서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혼신의 열과 성을 다한 작품을 출품하신 회원님들의 고운 손길에 따뜻한 예인의 공감어린 마음을 전하며 더욱 정진하시어 훌륭한 서예가로 일취월장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4회 정원서회(회장 홍찬기) 회원전이 11월3일부터 7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 2층에서 열렸다(사진은 참석한 내빈과 테이프커팅).

한편,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수덕▶김영숙▶김갑선▶김광한▶김병억▶김민수▶김진주▶박치훈▶박순녀▶서산옥▶송진영▶신동례▶안숙자▶유태균▶윤영규▶용명숙▶원범식▶이윤호▶이상옥▶이재호▶이동호▶이순휘▶이만기▶이상덕▶장동원▶정수옥▶홍찬기▶홍성민▶한상숙▶최장식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을 빛낸 인물의 학문사상 연구

포천문화원 2007학술 연구발표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금년도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11월7일 포천유림회관에서 문화원 임.회원, 관내 지도층 인사, 관계 문중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학술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연구 발표회는 포천을 빛낸 인물연구로 강남대 홍순석 교수의 봉래 양사언 선생의 생애와 문학, 경희대 신용철 교수의 사암 박순 선생의 생애와 사상, 경희대 김태영 교수의 약봉 서성 선생의 실질. 실천 중시사상, 대진대 권인호 교수의 용주 조경 선생의 생애와 공업 및 학문 사상 연구를 주제로 학술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우리 포천은 예로부터 나라를 빛내신 위인 .선열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선비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으로 이러한 선현들의 업적을 좀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선양하고 계승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문화원은 이번 학술발표회가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포천의 인물에 대한 연구발표를 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뮤지컬 이야기 #32

1940년대 뮤지컬 개요 - 브로드웨이(Broadway)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 세계가 죽음과 폐허로 신음하고 있을 때였다. 특히 유럽은 모든 문화예술 창작이 나치의 감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연예술 분야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유럽과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미국의 뮤지컬 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 할리우드는 뮤지컬의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뮤지컬 영화들이 제작되었으며 할리우드 뮤지컬 사상 최고의 명작들이 탄생했다. 브로드웨이도 어빙 벌린(Irving Berlin, 1888~1989), 콜 포터(Cole Porter, 1891~1964), 쿠르트 바일(Kurt Weill, 1900~1950) 등 1930년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들이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는데 특히 세기의 파트너였던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1895-1960)가 이 시기에 처음 만남을 가졌고 많은 명작들을 발표했다. 물론 1930년대 가장 성공한 뮤지컬 파트너로 기록되고 있는 로저스(Richard Rodgers)와 하트(Lorenz Hart, 1895~1943)는 1940년대 들어서도 파트너쉽을 계속 유지했다. 1940년에 〈팔 조이(Pal Joey)〉를 시작으로 〈바이 쥬피터(By Jupiter, 1942)〉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트가 다음 작품을 거절하자 공식적인 두 사람의 협력관계는 끝나게 된다. 비록 1943년 후반에 둘의 마지막 협력 작품인 〈코네티컷 양키(A Connecticut Yankee)〉가 공연되었지만 리바이벌 작품이었으며 〈코네티컷 양키〉의 개막 며칠 후 하트의 죽음과 함께 이들의 20년이 넘는 파트너 관계가 끝나게 되었다. 로저스의 최고의 파트너이며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파트너로 일컬어지는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와의 만남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고 1950년대까지 끊임없이 주옥같은 작품들을 만들게 된다.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2세는 1943년 초반에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데 하트가 휴식을 이유로 다음 작품 가사작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자 로저스는 해머스타인 2세와 손을 잡게 된다. 그 첫 작품이 〈오클라호마(Oklahoma!, 1943)〉였으며 이 작품으로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오클라호마(Oklahoma!, 1943)〉는 뮤지컬의 벨 에포크(Belle Epoque) 시대를 연 작품으로 평가된다. 벨 에포크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과학과 문화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시기이며 20세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충만했던 시기로 매력적인 문화예술이 꽃을 피웠던 시기이다. 그리고 〈회전목마(Carousel, 1945)〉가 발표되자 이들 두 작품은 뮤지컬 플레이(Musical Play)의 효시로 일컬어지게 된다. 탄탄한 줄거리와 함께 많은 대사가 포함된 대본에다 가사와 극중 댄스도 극의 일부로 결합된 작품을 뮤지컬 플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뮤지컬들이 뮤지컬 플레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들 두 작품 이외에도 〈스테이트 페어(State Fair, 1945)〉, 〈알레그로(Allegro, 1947)〉,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등이 1940년대에 발표되었는데 로저스와 해머스타인2세는 명작의 한가운데 놓여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1911년에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라는 곡을 작곡하여 미국 대중문화를 바꿔놓고 미국의 슈베르트라는 호칭을 얻게 된 어빙 벌린(Irving Berlin)은 1946년에 〈애니여 총을 잡아라(Annie Get Your Gun)〉를 발표한다. 이미 1940년대에 영화 속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를 포함해서 수많은 주옥같은 노래들을 발표한 어빙 벌린은 〈애니여 총을 잡아라〉에서도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쇼비지니스 같은 비즈니스는 없다(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 '내가 결혼하게 되는 소녀(The Girl That I Marry)', '나 역시 인디언(I'm an Indian, Too)' 등이 유명하다.

콜 포터(Cole Porter)도 1940년대에 마지막 히트작을 만들어냈는데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뮤지컬화한 〈키스 미 케이트(Kiss Me, Kate, 1948)〉가 그것이다. 쿠르트 바일(Kurt Weill)이 미국에서 만든 작품 중에서 〈거리의 장면 (Street Scene, 1947)〉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지만 미국 오페라로 분류되어지기도 한다. 퓰리처상을 받은 엘머 라이스(Elmer Rice)의 희곡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거리의 장면 (Street Scene)〉은 그 해 쿠르트 바일에게 토니상(Tony Award for Best Original Score)을 안겨주었다. 비제의 오페라에 기초한 〈카르멘 존스(Carmen Jones, 1943)〉도 1940년대 뮤지컬에 주요한 작품으로 꼽을 수 있으며 프레데릭 로(Frederick Loewe)와 알란 제이 러너(Alan Jay Lerner)의 〈브리가둔(Brigadoon, 1947)〉도 기억할 만한 작품이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韓國의 선비정신 · 82

유하장군(柳下將軍) 김응하(金應河)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광해군 무오년에 만주의 누루하치가 대군을 이끌고 명나라를 침범하자, 명의 신종은 우리나라에 구원을 청하였던 바, 우리나라에서는 도원수 강홍립과 부원수 김응서를 보내어 이를 구원케 하였다.

그러나 강홍립이 의리를 저버리고 누루하치에게 항복을 하자, 선천부사로 있다가 그의 좌영장으로 출정했던 장군 김응하는 대노하여 홍립을 꾸짖고 그이 휘하 포수 천여 명을 거느리고 약한 명군 편을 들어 적장 수십 인과 적병 5천여 명을 쓰러뜨렸다.

그런데 그가 한참 용전분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비바람이 불어와 모래와 티끌이 마구 날려 들므로 활을 쏠 수가 없어 크게 패하게 되자, 누루하치의 군사들이 맹렬히 공격해 들어오면서 부하들이 하나 둘씩 흩어져 마지막에는 응하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활을 들어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칼을 빼어들고 닥치는 대로 무찔러 나갔다. 그러나 칼마저 부러지자 하는 수 없이 부러진 칼자루만 들고 버드나무 아래 지쳐 쓰러졌다. 무지한 오랑캐 군사들도 그의 눈부신 용전에 감복하여 그의 시체를 거두어 고이 장사지내주고 유하장군(柳下將軍)이라 부르며 존경하였다.

김응하가 죽기 직전, 그는 전포를 찢어 전사일자(戰死日字)를 혈서하여 그가 타고 온 말의 목에다 매었다. 그리고 말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전하라고 이르고 죽었는데, 그 말은 사흘 만에 본가에 도착하였다. 응하의 아우 응해(應海)는 그 혈서 전포와 다른 의장 등으로 형의 무덤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말은 그 뒤 초료(草料)를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짐승이라도 그 의를 아는 높은 뜻이 있음을 기리어 관곽을 만들어 후히 매장해 주었는데, 그 무덤은 오늘날까지 남아 내려온다.

또 장군 밑에 통인으로 있던 김철현이란 사람은 그 때 나이 열아홉으로 갓 장가를 든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군을 따라 출전하여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장군이 순절할 때 그에게 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일렀으나 그는 듣지 않고 용전하다 죽었다.

뒤에 조정에서는 김응하 장군에게 영의정을 증직하고 충무공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통인 김철현에게는 그의 집을 십세복호(十歲復戶 : 10년 동안 세금과 부역을 면해 줌)시켰고, 의주에 지은 김 장군의 충렬사에 그의 화상을 함께 배향(配享)하였다.

장군 김응하는 본시 강원도 철원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여 온 고을 안에 칭찬에 자자하였다. 열 살 때 양친을 여의었고, 임진왜란 때는 열 네 살의 어린 나이로 그의 아우를 데리고 잘 피난하여 목숨을 보전했다.

차츰 장성함에 따라 힘이 장사여서 무슨 일을 하든 남의 몇 갑절을 해냈으며, 특히 사냥을 즐기었다.

을사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북해변장, 선전관 등을 역임하였는데 그의 몸과 마음이 매우 웅장하고 장대하여 능히 열 근 고기와 두어 말술을 한꺼번에 마시고도 정신을 잃는 일이 없었다.

또한 말타기, 활쏘기를 잘하여, 활을 쏘면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말을 달리면서 투구를 벗어 땅에 던지고 뛰어 내려 그 투구를 집어 쓰고 ◎아가 다시 그 말을 탈 수 있었던 용장이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오성 이항복의 지지를 받아, 경원부사에 올랐으며, 이어 선천부사로 전직되어 가 있다가 만주로 출정하였던 것이었다.

김응하(金應河)

1580년(선조13) ~ 1619년(광해군 1) 자는 경의(景義). 본관은 안동. 명장 방경(方慶)의 후손. 강원도 철원 출신. 키가 8척에 힘이 세어 장사로 알려졌다.

1604년(선조 37년) 무과에 급제, 선전관. 경원판관. 삼수군수. 선천군수. 조방장 등을 역임.

1618년 강홍립의 좌영장이 되어 청군과 싸우다가 강홍립이 패하자 나머지 군대를 수습, 적군과 싸워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명나라 신종황제가 요동백(遼東伯)에 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의정에 추증, 시호는 충무공.

충렬사. 표충사. 의렬사. 행렬사 등에 봉향

금상 포천삼정초 '미안해 친구야'

제14회 포천어린이 연극제, 새로운 감동의 무대

제14회 포천어린이연극제가 11월3일 오후2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관인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영중초등학교 등 3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사진은 포천삼정초 학생들).

제14회 포천어린이연극제가 11월3일 오후2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관인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영중초등학교 등 3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연극제는 관인초등학교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교장 이종만, 지도교사 박동훈), 포천삼정초등학교의 미안해 친구야!(교장 한태현, 지도교사 이영신), 영중초등학교의 동네북(교장 유영기, 지도교사 박예슬) 등의 작품이 출품돼 열띤 공연을 펼쳤다.

이번 연극제를 주최한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 한대관 지부장은 "어린이들의 건전한 통찰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협동을 전제로 한 표현문화를 회복해주고 어린이다움을 찾게 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의 자매된 능력을 찾아주고 신장시켜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극제 시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상 포천삼정초등학교 미안해 친구야(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상)▶은상 관인초등학교 파란마음 하얀마음(포천예총 회장)▶동상 영중초등학교 동네북(포천예총 회장상)▶연기상 김다희,반명섭(포천삼정초등학교) 곽호영, 김지선(관인초등학교) 이성일, 최형용(영중초등학교)

▶경기도교육위원 표창장 이영신(포천삼정초등학교 교사) 박동훈(관인초등학교 교사) 박예슬(영중초등학교 교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적답사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경기도지정문화재, 포천시지정문화재, 전적기념물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 책 '포천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적답사'를 발간했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우리 포천은 예로부터 나라를 빛내신 위인·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이라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곳곳에 스며있는 고고한 선비의 얼은 우리 후대들의 삶의 지표가 됨은 물론 이렇듯 유서 깊은 고장에서 살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포천문화원이 실시하고 있는 문화유적답사에 필요한 교재로 답사에 앞서 포천의 문화유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소책자로 발간했다.

포천문화원은 이 책을 문화유적답사에 참가하는 시민은 물론 관내 주요기관에 배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16)

「해방초」(달맞이 꽃) (EVENING PRIMROSE)

그리스 신화 속, 달을 사랑하다 죽은 님프의 영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다.

달맞이 꽃은 이름 그대로 밤에만 노오란 꽃송이를 열어낸다. 내 고향 포천에는 8.15해방 전, 없던 식물로 해방이 되자 「해방초」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남미(南美) 원산지에서 귀화한 달맞이 꽃은 한방에서는 월견초, 월견자라고 하며 뿌리와 씨를 약재를 쓴다고 한다.

해가 지면 비로소 꽃을 피운다.

그리스 신화에서 달맞이 꽃은 슬픈 요정으로 별을 사랑하는 요정의 마을에서 달맞이 꽃 혼자만 달을 사랑하다가 다른 요정들의 모함으로 달이 없는 곳으로 쫓겨난다. 달이 없는 곳에 살다가 달맞이 꽃은 죽는다.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제우스신은 달맞이 꽃을 가엾게여겨 그녀의 영혼을 꽃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달이 뜨는 밤마다 달을 쳐다보며 꽃을 피우게 되었다 한다.

달맞이 꽃의 꽃말은「기다림, 말없는 사랑」이라고 한다. 달맞이 꽃은 우리의 산야, 특히 포천에는 아무곳에나 잘 자란다.

다른 귀화식물(歸化植物)도 그렇지만 강한 자생력과 적응력이 뛰어나서 생존본능이 강하며 돌각담, 황무지, 언덕배기, 시궁창 등 아무데서나 잘 자라며 매우 번식력이 강하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 밤에만 꽃을 피우기로 한 것, 밤에는 꽃가루를 운배해줄 나비가 꿀벌이 없는 대신 나방이 있다. 그래서 달맞이 꽃은 박각시 같은 나방들에게 자신의 꿀을 내어 주고 수분(受粉)을 부탁하기도 하는데 꽃술 부분이 유독 끈적 끈적하여 나방의 몸에 꽃가루를 더 잘 붙게하는 지혜를 볼 수 있어 재미있다.

꽃이 진 후, 생겨난 꼬투리 속에 약200여개의 씨가 들어 있으며 곧고 튼튼한 줄기마다 수천개의 무수한 씨를 품고 있으니 실로 생명의 번식력이 놀라울 정도이다.

이러한 습성 때문인지 달맞이 꽃은 그 약효(藥效)도 탁월하다. 그 효능을 처음 발견한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야생 달맞이 꽃의 잎, 꽃, 줄기 등을 통째로 갈아 피부의 상처에 바르거나 진통제로 복용하기도 했다 한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월견초(月見草)」라 하여 감기 때문에 생긴 고열(高熱)이나 인후염 치료에 복용하고 그 종자(種子)를 「월견자(月見子)」라 하여 고지혈증에 사용한다. 특히, 달맞이 꽃 씨앗에 필수지방산(식물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리놀렌산)이 다량 함유되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다.

무엇 보다도「달맞이 꽃 종자유」는「프로스타글란딘」(혈압이나 혈당치, 혈중콜레스테롤 농도 등을 조절하는 생리활성물질)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맞이 꽃 오직 하나뿐이어서 유명하다. 고향을 찾으면 어려서 번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맞이 꽃은 유독 유명세를 더 하고 있는 귀화식물이어서 살펴 보았다.

바로잡습니다

포천신문 제393호 11면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이야기 215의 제목 '효자 유희일과 안순창의 지효(至孝)'를 '효자 이관하(孝子 李觀夏)'로 바로잡습니다.

초대 漢詩

鴻雁南飛九月千(홍안남비구월)

李昌秀
포천한시협회 회원

鴻雁南飛九月千(홍안남비구월천)
홍안이 남비하는 구월하늘에

靑窘萬里夕陽邊(청군만리석양변)
석양에 만리창궁을 날아가네.

春宵和暢知晞後(춘소화창지희후)
춘소가 화창하니 때를 알아 이동하고

秋夕寒凉應候前(추석한량응후전)
추석이 서늘하니 기후에 응해 남쪽으로 가려하네.

不老長生心活佛(불로장생심활불)
불로장생하여 마음은 활불인데

更新綠髮夢遊仙(갱신록발몽류선)
다시 녹발이나는 몽류 서이로다.

每年社日移州去(매년사일이주거)
매년 사일에 옛둥지 찾아가니

節序循環造化傳(절서순환조화전)
절서가 순환하여 하늘의 법도가 조화로움을 전하리.